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2, No.4 (July 2002) pp.111~123

## 몽골여자복식의 변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몽골·원 제국기 복식을 중심으로-

최 해 율 · 남 윤 자 · 조 우 현\*

서라벌대학교 뷰티디자인과 전임강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과 교수\*

###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and Transformational Factors in Mongolian Women's Costumes

-Focusing of Women's Costumes of Mongol · Yüan Era -

Hai-Yul Choi · Yun-Ja Nam · Woo-Hyun Cho\*

Full-time Instructor, Dept. of Beauty Fashion design, Sorabol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2002. 4. 9 토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rrectly understand the shaping process of Mongolian women's costumes, which had close connection with Korean costumes.

'Nomadic' factors of Mongol costumes are trousers and jacket, with deel(袍) pleated in the waistline for horse riding, and knee-covering narrow-sleeved long dress for men and women alike for protection against the cold. However, Married women wore bogthag(gogo:罟罟) containing symbols derived from nomadic way of life.

'Foreign' factors are divided into two kinds: foreign culture applied to Mongolian costumes(woven stuff, Koryo style), and transformation in costumes to adjust to the environmental alteration owing to extended territory(pigap(比甲), jacket and skirt), the last of which served as the chief distinction between nomadic and Yüan fashions.

'Religious' factors are unique patterns and colors while retaining their symbolism. Some aspects(möngke tengri or eternal sky) of Shamanism is reflected in avoidance of washing, while positive effect of Lamanism is evidenced in yellow cosmetic applied on the forehead and 16 sky devil dance clothes.

Key Words: 'nomadic'(유목생활 요소), 'foreign'(타국과의 관계 요소), 'religious' factors(종교적 요소), deel(델, 袍), bogthag(복타, 罟罟), Koryo style(고려양, 高麗樣)

\* 본 논문은 2000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속 생활과학연구소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I. 서 론

서로 다른 민족간의 복식교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문화 變形’의 의미를 지닌다. 이때 현 복식연구의 주요연구과제인 ‘한국복식과 몽골복식과의 관련성’에 있어, 정치적인 복식교류, 또는 현존유물간의 유사성만을 주목하는 것은 자칫 편향화된 연구로 치우칠 경향이 많으며, 복식교류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몽골복식을 형성하고 변천하게 만든 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생긴다. 몽골복식 형성 및 변천의 주 요인으로는 古代몽골의 유목생활과 관련된 유목민적 요소, 활발한 정복활동으로 인한 정치 외교적인 요소, 복식 뿐 아니라 몽골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 종교적 요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여자복식은 남자복식에 비하여 정치적 요소 이외의 형성요소를 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 여자복식의 형성요소 및 변천모습을 살피고, 고려와 元 여자복식 간의 유사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복식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있어 광범위한 몽골제국의 시대구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中國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제국들로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과 회화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고려와 몽골 복식과 관련된 현존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문헌상으로 밝히기 어려운 사항일 경우는 몽골학자들과의 인터뷰<sup>1)</sup>로 보완하기로 한다.

## II. 몽골·원 제국기 복식형성의 歷史的 배경

기원전 6세기~2세기의 파지리크(Pazyryk)문화는 몽골과 유럽의 혼혈문화로, 분묘에서 복타(bogtag:罿罟)와 유사한 女사제 두식이 발견되었다. 기원전 200년~1년의 匈奴 Noin ula 유적에서는 上下二部 복식- 雉袖 저고리와 궁고-가 발견되었

다. 저고리는 길이가 117cm로 袍에 가까운데, ‘타슈 ህጋይ ተይ ጭል(Tashuu ህጋይ ተይ ጭል:交領袍)’ 또는 ‘사가이 ህጋይ ተይ ጭል(Sagai ህጋይ ተይ ጭል: 직선 가장자리를 댄 袍)’에 해당된다.<sup>2)</sup>

‘몽골’과 관련된 ‘蒙兀’이란 명칭은 중국사서 《舊唐書》의 北狄, 室韋傳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몽골계 부족은 이후 테무진(Chingghis khan:太祖)에 의하여 통일되었다. 칭기스한의 아들인 주치(Jochi), 차가타이(Chaghadai), 우구데이(Ögödei), 틀루이(Tolui)에게로 영토는 골고루 분배되었고, 여러 제국들이 형성되었다. ‘元’(1260~1368)이라는 국호는 손자인 쿠빌라이(世祖)대에 와서 정식으로 사용되었다. 중원을 통치하게 된 元朝는, 유목복식 위에, 이전에 중원을 통치했던 宋代 漢族의 복식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1261년 무렵 전후로 고려와 몽골간에 교환되었던 문화적 영향은 각각 ‘高麗樣’과 ‘몽골風’으로 명명된다. 한편에서는 13세기의 몽골이 접촉한 4대문명을 유럽, 이슬람, (티벳을 거친) 인디아, 중국<sup>3)</sup>으로 나누고 있다.

## III. 몽골·원 제국기의 女子服飾

### 1. 北方遊牧시기의 복식

몽골남자는 기본적으로 거힐(kegül:캐풀: 늘인 앞머리)과 쉬빌겔(shibülgér: khoyar shibülgériyen: 양쪽으로 땋아서 둥글린 머리)<sup>4)</sup>를 하고 텔(deel:長袍)을 착용하였다.

한편 婦人服飾은 텔과 복타(bogta:姑姑冠)로 나타난다. 《몽골비사》는 칭기스한의 母親 호엘룬이 참즈(chamcha:텔 속의 内衣)를 입었고, ‘ukitala bogtala hojitala büselejü: 복타를 단단히 매고 텔을 올려 帶를 묶었다’고 전한다. 몽골부인은 떠 없이 헐렁한 텔만 입어 부스구이 훈(6ҮсгҮй xҮн: 떠 없는 사람들)이라 불리우며, 떠를 맨 부인복은 정식에 복은 아니지만, 단지 험한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sup>5)</sup> 北方遊牧시기의 여인복식은 참즈, 복타, 텔, 모피류로 대표되며, 이후의 몽골제

국기에도 기본형으로 유지되었다.



<도 1> 1260년대 말의 몽골제국 (『몽골세계제국』, pp.180~181)



<도 2> 元代 여용  
(『中國古代服飾史』, p.372)

## 2. 몽골제국과 원 제국기의 女子服飾

이 시기의 몽골제국은 칭기스한 치세기 말엽 및 차가타이汗國(1227-1344), 캅차크汗國 (1243-1502), 우구데이汗國(1224-1248), 元帝國(1260-1370), 일汗國(1258-1335)으로 나뉘며,<sup>6)</sup> 주도적 입장에 서서 타 문화의 복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 1) 몽골 遊牧風의 복식

#### (1) 男女同形의 처녀복식

귀육汗 치세기(1246년경)에 카르피니 신부<sup>7)</sup>가 관찰한 몽골복식은, 남녀의 의복이 같고, 羔布, 天鵝絨, 織錦의 텔(長袍)을 착용하는데, 왼쪽에서 1

개, 오른쪽에서 3개의 扣子(tie)로 여미고, 원편 트임은 직선으로 허리에 이르렀다고 한다.<sup>8)</sup> 텔은 左衽이거나, 오른쪽에서 고름 3개로 여미는 右衽인 것으로도 생각된다. 몽케汗 치세기(1253년경)에 방문한 루브룩도 당시의 몽골남자 체발형이 시벨필과 거혈이었고 몽골인들이 항상 右衽長袍를 착용했으며, 역시 소녀복과 남자복이 유사하다고 기록했다.

1260년대까지 생존한 왕족 ‘예순계’(Yesungge)의 분묘에서는 교령장포인 담호형 左衽窄袖袍가 발견되었는데 ‘男女同形의 텔’로 여겨지며, 간혹 이처럼 좌입도 나타난다. 元代 女俑 및 13-14세기 경의 몽골石人 중 34기 쇼보트(琇வួ)는 시벨필과 窄袖 텔 차림으로, 젊은 여자를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sup>9)</sup> (<도 2>) 이렇듯 당시의 처녀복식의 특징은, ‘男子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 (2) 복타(БОГТАГ:bocca:姑姑冠:罟罟冠)

#### (2)-1. 복타의 형태와 착용자

복타는 결혼한 부인의 관모로서, 칭기스한 치세기의 《蒙韃備錄》은 고고가 高官婦人の 필수禮冠<sup>10)</sup>임을 말한다. 우구데이 치세기의 《黑韃事略》은 ‘向上人은 翠花五采帛....以下人은 야생닭털을 쓴다.’<sup>11)</sup>라 하여, 고고 장식의 차이로 계급차가 표현되었다. 카르피니는, ‘부인은 남자 앞에 복타 없이 다니지 않는다.’라 하여, 복타가 內外의 의미를 지녔음을 밝혔다. 루브룩은, ‘婦女頭飾은 bocca(БОГТАГ)라 하며.... hood 위에 속이 빈 두식(БОРТОГО)을 놓고 잡아매며, 모자 정수리 구멍은 이때 사용된다.’<sup>12)</sup>라 하여 착용법을 설명하였다.

원 제국기에도 고고는 계속 사용되었다. ‘固姑는 韃靼과 [미미婦女들이 쓴다...南方漢族여자들은 쓰지 않는다.]<sup>13)</sup>, ‘강남에 많은 눈들이 다투어 固姑를 구경하였다.’라는 대목은, 漢人들이 고고를 禮帽보다 기이한 구경거리로 생각한 것을 보여준다. ‘차 안에 고고의 羽毛가 한척 길이로, 여시종이 뽑아내서 손에 들었다....<sup>14)</sup>’에서 보이듯 활동에 불편한 거대한 머리장식을 既婚女人의 예장으로 간주하는 풍속은, 고대에 시작되어 몽골의 전통양식으로 이어진다. 《草木子》 잡제편에서는 ‘元朝后妃, 大臣

正室들은 姑姑를....다음가는 자들은 皮帽를 썼다....<sup>15)</sup>라 하고, 《元宮詞》에도 ‘侍從은 皮帽, 모든 姑麻는 罂罟를 쓴다....<sup>16)</sup>’라 하여 고고에 의한 시녀와 귀부인의 구분이 보이는데,<sup>17)</sup> 이는 처녀와 부인의 구별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元代 罂罟에는 珠를 끼매 가닥을 만들고 方弦으로 끼맨 것이 덮였다고 한다.<sup>18)</sup> 이와 관련해 바이에르(1996)는 元代 ‘歷代皇后肖像’의 복타끈(사갈드라카:САГАЛДРАГА)에 부착된 마름모형 진주장식을 ‘하탄수이호(XATAH СҮЙХ:여왕의 귀걸이)’로 해석하였다.<sup>19)</sup> 이것은 13~14세기 부인의 필수장표이며,<sup>20)</sup> ‘女寶’의 의미를 지닌 方勝紋과 같은 형태이다. 또한 ‘金을 포개 장식하며 ....정해진 人家에서 鶴를 길러 꼬리털을 쥐하는데 매우 귀하다.’<sup>21)</sup>라는 언급은, 元代 복타에 호화로운 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歷代皇后肖像’ 몇 점에는 立飾에 위아래를 나누는 가로 절개선과 머리태의 다아트가 관찰되어, 구성형태를 짐작케 한다. 立飾은 받침대 없이 세워져 있는데, 입식과 연결된 사갈드라크를 턱 밑으로 단단히 잡아매어 고정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 (2)-2. 복타의 의미에 대한 해석

파지리크의 女司祭 두식은 높은 黑色立飾 둘레에 鳥形장식을 부착한 것으로, 生命樹의 상징<sup>22)</sup>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周書》口厭噠傳에 의하면 弟兄가 한 여인을 함께 취할 때, 妻는 雙의 갯수로 지아비의 수를 표시한 모자를 쓴다고 한다. 이렇듯 복타의 기원형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용되었다.

몽골제국기의 루브룩은 ‘귀부인들은 ‘복카’때문에 투구를 쓰고 창을 든 병사로 보인다.’라 했는데, 당시 몽골세력의 확장에 의한 서방인의 경계심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Ricolous(1864)은, 복타 입식 끝부분을 발(foot)로 해석한다. 칭기스한의 대야사에 명시되었듯 당시 종군하는 婦女들은 싸움에서 물려난 남편의 책무를 대행해야<sup>23)</sup>했고, 승리에 공헌한 결과로 冠을 쓸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교만함을 방지하기 위해 남성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표식으로 冠 위

에 발 모양이 올려졌다고 한다.<sup>24)</sup> 이러한 해석은, 남녀역할의 차이가 적은 유목환경 속에서도 남성의 권위가 중시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江本敬二(1940)은, ‘顧姑(故姑,故故,罟罟,姑姑)와 bogtak(bocca,boctac,bogthâk)는 같지만, 전자는 몽골어 kukul, 후자는 페르시아어에 기원을 둔다고 한다. ‘kukul’은 ‘裝飾’(keke)의 전음 ‘kükü’ 또는 ‘kulkul’, ‘bogtak’는 페르시아어 ‘bogtag’(터번)에서 유래된 듯하다.<sup>25)</sup> 그러나, 여기에서 복타의 독특한 형태를 설명하는 단서는 찾기 어렵다.

李志常은 ‘끝이 鵝鴨같아서 故故 또는 姑姑라 부른다.’<sup>26)</sup>라 하여, 새의 형상과 연결지어 해석하였다. ‘故故’는 蒙古語가 아니고 이지상이 창조한 ‘元語’로 여겨지고 있다. 元代 《至元譯語》은 ‘故故는 播庫脫이다.’라 하는데, ‘파고탈’은 ‘BÖHÜT MALGAI(駝峰冠=李黑塔刺周)의 음역으로, 관 정수리와 모자부위가 벌어져서 낙타 雙峰모양과 같아 얻어진 명칭이다.(<도 3>) 관에 붙인 翎毛는 낙타갈기(鬃毛), 既婚男女의 百年好合을 상징하는 白頭偕老의 의미라 한다.<sup>27)</sup> 이렇듯 관찰자에 따라 복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이 나타나며,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 (3) 넓은 텔(大衣)

《몽달비록》은 ‘文袖衣는 中國 鶴鷺같이 넓고 땅에 끌려서, 걸을 때 女奴가 부축한다.’라 하였고, 카르피니는 ‘婦人은 헐렁한 長袍를 입는데, 앞이 바닥까지 터져 있다...’<sup>28)</sup>라 하며, 부인의 복은 넓은 텔로 바뀌는 것을 밝혔다. 루브룩도, ‘婦人們은 修女用 cowl같은 넓은 tunic를 입는데, 앞쪽이 터졌고 오른쪽 옆에서 묶는다....투르크는 왼쪽, 타타르는 언제나 오른쪽으로 여민다.’<sup>29)</sup>라 하여, 右衽형식 까지 기록하였다. 바이에르(1996)도 몽골복을 구별하는 차이점으로 ‘右衽의 앞섶’과 ‘右衽直領’을 제시한 바 있다.<sup>30)</sup>

《南村綴耕錄》에서는, “국조의 부녀예복은, 달단은 袍, 한인은 圉衫, 남인은 大衣라고 한다...”<sup>31)</sup>라 하여, 부인 텔의 여러가지 명칭이 나타난다. 《南薰殿畫像考》는, ‘袍는 大紅色에 織金하여 雲龍으로 감싼 것을 많이 입었는데....극히 넓고 헐렁하다.

수구에는 금조를 수놓고 五寸 정도로 좁게 한다....<sup>32)</sup> 라 전한다. 이것은 좁은 袖口의 넓은 두리소매가 달린 大衣로, 元 文宗妃가 착용한 것과 거의 같다.(**도 4**)



<도 3> 順宗答濟皇后  
(『중국복식5천년』, p.349)



<도 4> 元 文종비와 그 아우의 비  
(『織绣珍品: Treasures in silk』, p.273)

元朝 ‘歷代皇后肖像’의 大衣들은 3겹 엠제르(эм제르:襯, 緣)가 부착된 右衽交領으로, 그중 2개는 부선이다. 바이에르(1996)는 3겹 엠제르는 女子의 특징이고, 男子귀족은 2겹 엠제르의 멜을 착용했다고 하며, 皇后는 2겹, 貴婦人은 1겹 엠제르로 구분되는 경우도 나타나, 엠제르가 신분구별 요소로도 사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 13~14세기 몽골 女子

石人们도 대체로 복타로 여겨지는 뾰족한 흔적의 관모를 썼고, 의복은 袖口가 좁고 헐렁한 형식이다. 몽골제국 형성기에서 원 제국 후기에 이르기까지 몽골 유목풍의 婦人복식은 거의 복타와 大衣의 조합이며, 이 안에 바지와 저고리의 참즈(內衣)를 입는 것이었다.

#### (4) 腰線襖子

우구데이 치세기의 《黑韃事略》에서 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sup>33)</sup> 첫째는 ‘우임방령복’이며, ‘下領’이라는 묘사로 보아 교령복으로 여겨진다. 둘째는 道服領(方領, 四方上領), 즉 ‘네모깃’이 달린 것으로 허리에 주름이 많고 12폭이다. 셋째는 腰線襖子로, 흥자색 요선을 허리에 붙이고 말 위에서 허리를 졸라매어 돌출시킨 것이다. 乘馬時에 腰帶를 졸라매는 것은 腰部와 肋骨부위를 수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sup>34)</sup> 腰線장식도 근본적으로는 유목생활 요소로 볼 수 있다. 칭기스한 시대의 《蒙韃備錄》은, ‘부녀들은 기마에 능란하고, 옷은 中國道服류 같다.<sup>35)</sup>’라 하는데, 위와 같은 복식으로 보인다.

新疆鹽湖古墓출토의 원 제국기 細線襖는 腰線이 30줄에 달하고 圓領과 袖口에 서역풍 문양의 金錦을 둘러 정교하고 호화로운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sup>36)</sup> 이는 요선오자의 본래 목적에 장식적 요소가 더욱 부가된 것이다.

#### (5) 텔릭(terlig:telig) 류

고려 정석가의 텔릭은 몽골 어휘 Terlig의 발음을 차용한 것이라 하며,<sup>37)</sup> ‘褶兒’는 袍 안에 입는 얇은 帖裏, ‘帖裏’는 겉에 입는 호화로운 의복으로 구분된다.<sup>38)</sup> 바이에르(1996)는, 멜 위에 입는 허리 주름의 右衽半袖衣를 특정명칭 없이 ‘禮服’으로 언급하였다.

이때 ‘텔릭’ 류의 발음으로 불리우는 몽골의복은 두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Telig’라 불리우는 ‘Cuba(uuji)debel-ün adali böged mangnug -tur quniyasu tatagsan-yi’로서, 마고자와 비슷하며 주름이 잡힌 龍綬袍이고, 둘째는 ‘Terlig’라 빌음하는 ‘köbüngtei urtu ogur debel’로서, 안에 솜을 넣은 長袍이다.<sup>39)</sup>

첫번째의 텔릭(Telig)은 汗이나 귀족용으로 龍紋을 올린 우임교령복으로 보이며,<sup>40)</sup> 박성실(1992)는 'Telig'를 우리의 첨리(철릭)형태로 규정하였다.<sup>41)</sup> 두번째의 테릴릭(Terlig: ТЭРЛЭГ)은 땀받이용 천을 안감으로 대어 누빈 옷인데, 어원은 투르크 계열어로 '땀을 흡수한다'는 '텔다크'이다. 안감이 다른 재료라면 텔로 분류되며, 허리주름에 관계없이 '테릴릭'이 될 수 없는 것이다.<sup>42)</sup>

元代 婦人은 떠 대신 허리주름이 있는 옷을 입었고, 이것이 오이릿트 및 부리앗 몽골에 전해내려 오게 되었다고 한다.<sup>43)</sup> 몽골문자를 차용한 清代의 『만문노당(日譯)』에서는, '테레리(teleri)'를 '捏摺女朝衣', 즉 清朝女人朝袍 중에 허리주름을 잡은 I:下連綴形의 朝袍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보면, 그 이전의 몽골에서 女人用으로도 허리주름의 옷을 '텔릭'류의 발음으로 명명하여 입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몽골의 두루마기형 여자복과 허리주름의 여자복은 모두 테릴릭(ТЭРЛЭГ)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경우가 많고, 이는 땀받이를 맨 것으로 보아 활동이 많을 때 입는 것으로, 의복형태로 인한 명칭은 아닌 듯하다. 따라서, '철릭'의 정확한 기원에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다.

#### (6) 質孫(一色服: jisun)

카르피니는 귀족汗 궁정의 연회복을 가리켜, '첫 날에는 모두 白色天鵝絨, 둘째날에는 紅色天鵝絨, 세째날에는 藍色天鵝絨, 넷째날에는 織錦衣를 입었다.<sup>44)</sup>'고 한다. 이런 모습은 쿠빌라이汗의 연회에도 나타난다. 『元史』輿服志에 의하면, 질손은 一色服이며 대연회에 입고 정해진 제도는 없다.<sup>45)</sup> 『道園學古錄』는, 연회 衣冠이 모두 한가지이고 只孫이라 부른다고 한다. 周伯琦 『近光集』卷1에 의하면, 지손은 '詐馬'인데 페르시아어의 자마(jāmah: 衣)라는 뜻이다.<sup>46)</sup> 一色衣란 의복자체의 衣冠色보다는, 연회 참석자들이 모두 같은색 옷을 착용하는 관습에서 비롯된 명칭인 것이다.

질손은 大珠(塔納:tana)류를 뛰어 어깨, 등, 가슴을 장식한 연회복이며, 『元史』列傳 중에도 역시 지손복을 珠衣라고 일컬었다고<sup>47)</sup> 한다. 따라서 평상복과 질손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장식의 차

이, 모두 한가지 색으로 입는다는 차이만이 존재하는 듯 하다.

그러나, 『원사』에는 여자용 질손에 대한 언급이 없다. 허리주름의 여자복<sup>48)</sup>은 존재하지만 이는 질손만의 특징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연회의 귀부인들이 다른 자들과 같은색 옷을 착용한 경우에 한해 질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1289년에 元의 阿古大가 公主에게 바친 '眞珠衣'<sup>49)</sup>의 경우, 장식재료를 고려한다면 質孫형식을 갖춘 女人宮中복식일 수 있다. 그러나, 1271년경 찌툰(刺桐)을 여행했던 D'Ancona는 '작은 진주를 박아서 짠 희귀한 최고급 Satin<sup>50)</sup>'인 'zittani'를 언급하였고, '眞珠衣'는 진주를 짜넣은 직물로 제작된 大衣일 가능성이 더 높다.

#### (7) 몽골 유목풍의 기타 복식

대야사 및 『蒙韃備錄』은 '의복이 닳을 때까지 빨지 않는다.' 라 전한다. 카르피니나 루브록은 특히 천동이 칠 때 이들이 의복세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黑韃事略』은 몽골인들이 늘 "영원한 하늘의 힘으로"라 말하고 다닌다 하여 長生天 사상의 일상화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옷을 세탁하지 않는 관습은 물 부족 및 샤머니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루브록의 기록에는, 몽골의 한랭한 기후 때문에, 털이 밖으로 향한 羊皮, 猴皮류의 衫들을 몽골족에서 받아 착용했던 대목이 종종 보인다.<sup>51)</sup> 따라서 '胡服', '遊牧服飾'을 말할 때는, 그들이 활동하던 척박한 기후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 2) 元 帝國風의 복식<sup>52)</sup>

##### (1) 比甲

『蒙史』는 "(至元 十三年)....(찰필 황후가) 또 한 옷을 제정하길, 앞에 裳이 달렸고 衽은 없으며, 뒷길이는 앞의 갑절이고 領과 袷(소매)는 없다. 양쪽에 褙를 달아 比甲이라 하는데, 기마와 활쏘기에 편해서 많이들 본받게 되었다."<sup>53)</sup>라 밝히고 있다.

이 비갑은 對襟無袖長衣인데, 찬바람을 막는 깊은 여밈의 유목복식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며, 몽골婦人正裝인 '우지(yuy:uudji)' 형태와 거

의 일치한다. 우지는 페르시아의 무수장의(오즈)라는 발음에서 유래된 듯 한데,<sup>54)</sup> 카르피니와 르브록의 기록, 13-14세기의 몽골석인상에는 無袖對襟服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비갑은 元제국 안정기 무렵에 본격적으로 착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현존 우지는 앞뒤길이가 같지만, 清 간섭기의 西몽골 울드族의 척데크(чэгдэг:chegdeg:우지의 일종)에서 이처럼 앞뒷길이의 차이가 나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도 5>, <도 6>)



<도 5> 할흐 우지  
(『MONGOL COSTUMES』, p.84)



<도 6> 울드 척데크  
(『The cultural monuments of Western Mongolia』, p.63)

이때 『朴通事諺解』를 보면, 麗末鮮初의 ‘比甲’에는, 무수대금이며 襪積이 있는 비갑(돕지털리), 短襖에 해당하는 비갑(搭護)의 두가지가 존재한다.

“소매가 없고 對襟형이며 주름을 잡은 것(襞積)을 比甲이라 하며, 즉 本國의 돋지털리이다. 婦女 역시 이 제도에 의거해 따랐고, 인하여 短襖를 착용한 것 역시 比甲이라 불렀는데 일반적인 명칭은 搭護이다.”<sup>55)</sup>

‘돕지’는 對襟형식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sup>56)</sup> 또 보편적인 ‘털리’의 형태를 생각하면, ‘襞積’은 액주름이 아닌 허리주름으로, 이 무수대금 비갑은 우지와 거의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 ‘부녀도 이 제도를 따랐다’고 하여, 당시의 돋지털릭류는 큰 남녀구별 없이 착용되었던 듯 하다. 우지의 주름도 馬上에서의 편리함을 위한 것으로<sup>57)</sup>, 무수대금 비갑과 목적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무수대금 비갑에서 파생된 당시의 婦女답호는,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과 유사하게 옆무에 주름이 있는 半袖衣로 여겨진다.

## (2) 上下二部식의 襪裙

元代의 영락궁 벽화에서는 일반부녀들이 裙과 함께 허리를 지나는 짧은 반비와 저고리를 입었는데, 이전의 유목복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蒙史』 至正十二년의 기록에는 ‘궁녀 11여명은.... 唐帽窄衫을 착용했다.’하여, ‘당모’라는 漢族풍 요소가 보인다. 『元宮詞』에는 ‘包髻闌衫別樣妝’, 張崇擧의 『貽離姬朱繡蓮』에는 ‘半臂京納穩称身’<sup>58)</sup>의 모습이 묘사되었고, 對襟反折領의 여자복식도 현존한다. 바이에르(2000)는 對襟反折領에 대해 ‘이런 엉게르는 중앙아시아의 추운 날씨 및 馬上에서 바람과 맞서는 遊牧民 생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sup>59)</sup>라 하는데, 보다 온후한 기후의 西域복식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襪, 衫과 裙, 裳을 조합하여 表衣로 입거나, 짧은 半臂, 對襟反折領은, 元제국 안정기에 매우 성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려 저고리 길이가 짧아진 원인은 보편적으로 ‘몽골풍’의 영향으로 인식되며 이는 몽골복식이 上下二部 胡服임을 전제로 하는 설이다. 그러나, 몽골유목복식에서 저고리와 바지는 내

의에 속하며, 바람을 막는 기마용 窄袖長袍가 기본형이다. 몽골 텔의 초기형인 억터르 텔(ОГОТОР ДЭЭЛ)은 길이가 짧았으나 古代 山林族 및 빈곤층의 것으로, 이것이 騎馬遊牧民에 맞게 정강이를 가리는 긴 右衽의 텔로 변형되었다고 하는데,<sup>60)</sup> 짧은 텔은 몽골제국기의 기마유목생활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짧은 上衣와 裙을 表衣로 입는 元代女人服飾은 온화한 기후에 적합한 것이며, 최소한 '몽골 유목풍'이 아닌 '元 帝國風'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 (3) 高麗樣

『남촌철경록』은 ‘用紫色梭藤縛帽而製靴作高麗國’이라 하며, 『庚申外史』는 元末에 고려복식이 넘친다<sup>61)</sup> 하였으나, 가장 확실히 묘사된 高麗樣은 ‘方領過腰半臂裁’<sup>62)</sup>이다.

이와 관련하여, 伯孜克里克 벽화의 ‘蒙古小女裝’의 여인들은 方領長半臂를 착용하고 있다. (<도 7>) 李肖冰(1995)은, 元代婦女의 半臂裝은 漢族과 다른데, 前者の 半臂裝은 허리를, 元代 蒙古半臂는 무릎을 지난다<sup>63)</sup> 하여, 몽골반비는 長半臂로 구분하였다. 宋代 旋襖와 비슷한 猶袖(對襟마괘형 半袖衣)<sup>64)</sup>가 元代에 빈번히 관찰되어, 고려양만이 당시의 짧은 옷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려양의 방령은 교령 또는 네모깃<sup>65)</sup>으로 생각되는데, 모두 이전의 몽골복에 존재하고 있어서 방령은 元朝궁정에서 ‘新尚’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짧은 반비(과요반비)’라는 형식이 고려양으로 불리울 만큼 이미 고려복식으로 두루 사용되었음을 확실한 듯 하다. 이를 생각하면, 고려의 衣길이가 짧아진 원인을 몽골의복에서만 찾는 것은 무리일 듯 하다.

박두이(1997)는 元宮詞의 여인이 입은 對襟直領半袖衣(半臂)와 유사한 형태로 方形동정 對襟衣를 고려양으로 추정하였다.<sup>66)</sup> (<도 8>) 또한 ‘과요방령반비’는 조선 중기 정응두의 半袖方領衣<sup>67)</sup> 형태였을 수도 있다. (<도 9>) 그러나 반비의 여인과 함께 묘사된 남자들은 몽골유목형 복식인 后檐帽(琼 овчн 3형 관모)와 우임교령장포를 착용하고 있어, 元朝 남자복식보다는 여자복식에서 고려양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던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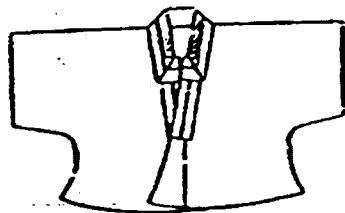
高麗관리가 관례적으로 몽골服飾을 착용한 것<sup>68)</sup>에 비해, 高麗女人의 服色이 몽골여인을 따랐다는 高麗 문헌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려로 도입된 몽골의 고고는, 궁중의례품으로서 특정행사에 착용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sup>69)</sup> 귀육汗의 사망 시에, 톨루이汗의 皇后 소르카타니가 애도의 뜻으로 그녀의 의복과 boghtagh를 보냈는데<sup>70)</sup>, 고고관의 수여에는 착용목적 외에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을 뜻한다. 고려왕비들이 고고를 平常禮冠으로 사용했다거나, 이것이 민간으로 전파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도 7> 몽고소녀장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p.346)



<도 8> 반비의 귀부인  
(『中國服飾 5000년』, p.342)



<도 9> 정응두 방령반비  
(『朝鮮前期出土服飾研究-壬辰倭亂以前時期를 中心으로-』, p.224)

#### (4) 원 제국풍의 기타복식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붉은 點形 연지화장을 행한 예가 보이는데, 몽골계 여자의 화장의 기원은 匈奴의 燕支에서 찾을 수 있다. 양 뺨에 찍는 唐代 '粧靨'은 서역의 胡俗화장이며, 胡姬를 그린 자료 중에 많다고 한다.<sup>71)</sup> 그러나 뺨에 '점을 찍는' 형식은 청 간섭기 이후의 몽골자료에 많고, 몽골제국기나 원 제국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內몽골 准格爾旗人沙塔古墓 벽화의 漢族복식을 입은 여주인의 뺨에 點形 화장의 흔적이 남아 있다. 따라서, 古代 북방계 여인들이 공통적으로 點形 연지를 썼던 것이 몽골제국 안정기 이후에 다시 성행했거나, 또는 몽골 제국기 기록에 보이는 '얼굴에 칠하는' 화장이 환경변화에 따라 상징적인 點形으로 바뀌어 갔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원 제국 안정기 이후에는 右衽 외에 左衽이 빈번히 나타나는데, 돌궐의 여인이 左衽인 것을 참조한다면, 여러 민족의 문화와 복식을 아우르게 된 당시 상황에서 도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 3) 원 제국기의 종교와 관련된 여자복식

##### (1) 化粧 및 裝飾

몽골 제국이 팽창하면서 샤머니즘 외에 도교, 불교, 이슬람교 등이 궁중에 혼재하게 되었고, 원 제국기의 풍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다.

원 제국 안정기의 복타에는 '정상에 金十字가 있어 깃통을 고정시킨'<sup>72)</sup> 형식의 것이 있다. 宮中宗教 중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상징일 가능성은 있으나,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하여, 불교의 영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蒙韓備錄』은, '婦女의 黃粉塗額은 漢의 옛 치장이다.'라 하였다. 南北朝 이후, 부녀들이 金佛像을 흉내내 이마에 황색을 들이기 시작했다.<sup>73)</sup> 契丹과 蒙古族 부녀는 황색을 금색으로 여기고 얼굴에 바르고 佛裝이라 불렀는데, 唐代漢族婦女의 黃裝의 영향이며, 원대 통치계급에서 성행하던 불교의 역사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74)</sup> 몽골 부녀의 황분도액은, 金製佛像의 형상을 본뜬 것임을 고려한다면 라마불교의 神像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2) 十六天魔舞服

『草木子』 雜制편에서는 '십육천마무는 朱纓으로 장식한 16 美人을 부처로 한다.'라 하였고, 『원궁사』는 '십육천마무를 출 때 纓絡(瓔珞)을 허리에 매단다.'라 전한다.<sup>75)</sup> 『蒙史』에는 '至正 14년 (1354년)... 十六天魔... 여리가닥으로 땅은 머리에 상아佛冠을 쓰며, 紫色瓔珞을 장식했고, 천홍색 納金의 長短裙과 金織襖, 雲肩, 合襫천의를 입고 綏帶를 띠며 혜와 말을 신었다....'<sup>76)</sup>로 전해진다. 이는 宮女舞服에 속하는데, 현존하는 라마교의 質(逐鬼假面舞) 복식 및 佛像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형태로, 궁중종교였던 라마불교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朱纓盛飾', '瓔絡鬪腰', '身披紫瓔珞'은 재료 차가 있지만 質에서 착용되는 '루진'(Rüüjin: 術)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IV. 결 론

제국 안정기 이전의 몽골 유목복식은 척박한 유목환경 및 기마활동의 편리를 우선시한 것으로, 남녀복이 유사한 交領長袍이다. 이는 몽골생활의 주요 부분인 '유목생활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의복류에서도 질손, 요선오자, 텔릭 간의 세부구분이 필요하다. 다만 부인들의 높은 복타는 편리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lt;표 1&gt; 몽골·원 제국기의 여자복식 형성요소(유목풍과 원 제국풍)

요소 구분	세부 구분	여자복식 사항	관련복식 사항
유목 생활	遊牧풍	여인 바지. 복타(婦人毘수禮帽). 大衣, 붉은 멜, 네히 멜. 女人騎馬時의 帶 爪用. 婦女화장; 狼糞塗面, 膾脂 중국도복형(철릭형) 부녀복. 小女와 男子의 의복은 유사.	시벨필. 캐풀. 右衽交領袍, 方領翟祫, 腰線. 고리달린 향당襦, 左衽長袍. 털이 밖으로 된 毛皮長袍. 의복이 많을 때까지 세척불가(물 부족). 質孫(연회의 모든 참가자가 一色).
	元 제국풍	婦人服인 복타와 大衣. (호화로운 재료: 유목풍의 지속) 比甲(騎射에 편리)	캐풀, 시벨필, 질순, 우임교령포, 요선 (호화로운 재료: 유목풍의 지속) 比甲(騎射에 편리). 前簷帽.
他國 과의 관계 (외래적)	遊牧풍	女人用 얼굴가리개 복타(상징적 하사품)	나시치(回回人, 네스토리우스 교도 제작), 기타 호화복식 재료. 타타르인은 右衽, 투르크인은 左衽
	元 제국풍	比甲(無袖對襟). 對襟反折領. 短襖와 裳(裙)의 조합. 漢族風 服飾에 적용된 左衽. 高麗樣(方領過腰半臂). 宮女服(帕勒常服, 唐帽, 窄衫). 點形臙脂. 男女차이가 비교적 확실함.	나시치, 씨타니, 기타 호화복식 재료. 質孫재료(回回速夫, 高麗鴉青羅). 漢族風 服飾에 적용된 左衽. 袞冕, 高麗帽, 高麗靴.
종교적	遊牧풍	婦女화장: 黃粉塗額(불교)	천등이 올릴 때 의복세탁 불가. (長生天: 몽케 템개리 사상)
	元 제국풍	복타의 金十字(네스토리우스교: 추정) 十六天魔舞服(라마불교)	
비고	'遊牧풍'의 복식은 元 제국 안정기에도 대부분이 유지됨.		

유목몽골풍의 복식은 몽골제국 안정기에도 유지되지만, 타국의 복식재료가 도입되고 온화한 환경으로 터전이 바뀌면서 보다 화려해지고 上下二部식의 褙裙 및 無袖, 對襟 형태가 다수 나타난다. '타국과의 관계요소'는 몽골여자복식의 주요 변천요인의 하나로, 고려복식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여기서 '몽골 유목풍'과 '원 제국풍'은 확실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몽골 유목여자복식의 기본형이 바지 저고리 위에 바람을 막는 窄袖長袍를 입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몽골풍 복식이 반드시 짧은 저고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종교적 요소'를 살펴보면, 제국안정기 이전의 몽골 복식생활에서는 환경조건 및 샤머니즘이 혼합된 '의복 세탁에 대한 금기'가 보인다. 이후 제국의 확장에 따라 여러 종교와 복식이 혼재하여 보다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불교의 영향이 두드러져 칭기스한 시기에 이미 황분도액 화장이, 원

제국 안정기에는 확연히 라마불교의 영향으로 여겨지는 십육천마의 궁녀무복이 나타난다.

이러한 형성요소 및 변천요인들로 인해, 고려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元朝 末의 여자복식은 長袍, 복타, 大衣와 함께, 高麗樣, 불교적 화장법과 천마무복, 上下二部의 褙裙, 漢族복식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몽골풍'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고려복식과의 관계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몽골여자복식 간의 유사성이 주로 조선시대 중후기 유학자들의 기록으로 강조된 것임을 고려하여, 이후의 연구에서는 당시의 清과 몽골복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1) Dugar Nansalmaa (Ethnologist, Ph.D.): Vice Director (몽골국립역사박물관)  
G. Gantogtokh (Ph.D.): 몽골國立大學 몽골學大學 民俗言語學 教授(Ulanbaatar)  
인터뷰 시기는 2000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로, 울란 바트르 몽골국립역사박물관 연구실에서 행해졌다.
- 2) U. Yadamsuren.『VOLKSTRACHTEN DER MVR.』 Staatsverlag Ulan Bator. 1967.
- 3) Henny Harald Hansen,『MONGOL COSTUMES』, Thames and Hudson. 1993. 20쪽 참조
- 4) 테 바이에르 저, 박원길 역,『몽골식인상의 연구』, 도서출판 혜안, 1994. 62쪽
- 5) 19-20세기 초의 B.Sharav의 회화에는 노동중인 부인 이 데일에 부스를 묶은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6) 大汗의 즉위순으로, 칭기스한(太祖)치세기(1206-1227), 우구테이한(太宗)치세기(1229-1241: 몽골제국기), 귀육한(定宗)치세기(1246-1248: 몽골제국기), 뭉케한(憲宗)치세기(1251-1259: 몽골제국기), 쿠빌라이한(世祖) 치세기 이후(1260-元末: 원 제국기)로 구분할 수 있다.
- 7) 카르피니와 루브록은 킵차크의 바투汗을 거쳐 각각 귀족 大汗과 뭉케 大汗에게로 보내졌다.
- 8) Christopher Dawson,『Mission To Asi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0. 7쪽 참조
- 9) 『집사』의 삽화에서도侍女는 거혈과 시뻘겔, 窄袖 멜 위에 右衽交領 半袖衣를 착용하고 있다.
- 10) 『蒙韃備錄』, 婦女 : 凡諸酋之妻則有顧姑冠用鐵絲結成形如竹夫人
- 11) 『黑韃事略』: 故姑之製 .... 其向上人則用我朝翠花或五采帛飾之令其飛動 以下人則用野鷄毛
- 12) 道森 編,呂浦 譯,周良霄 注,『出使蒙古記』,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120쪽
- 13) 『事林廣記·服用原始』: 固姑今之韃靼回婦女戴之....若南方漢兒婦女 則不得戴之
- 14) 『蒙韃備錄』, 婦女: 元忠按 顧姑亦作固姑.... 醉來馬上彳青人扶江南有眼何會見爭捲珠簾看固姑 云揚允孚 漢京雜詠云 香車七寶固姑袍 旋摘修翎付女曹 注云 凡車中載固姑 其上羽毛又尺許拔付女侍手持對....
- 15) 『蒙韃備錄』, 婦女: 草木子雜制篇云 元朝后妃及大臣之正室 皆帶姑姑 衣大袍 其次則帶皮帽
- 16) 『蒙韃備錄』, 婦女: 元宮詞云 侍從皮帽總姑麻罟罟高冠....又云要知各位恩深淺且看珍珠罟罟冠是也
- 17) Ibn Battūta는 복타를 원추형 머리장식이라 말했고, 1347년 무렵의 金帳汗國의 카툰은 boghtag와 mantles形 robe, 귀부인은 베일, 시녀는 깃털을 올린 aqrūf(fež) 같은 kulah(cap)을 썼다고 한다. 일汗國의

『집사』삽화에도 귀부인은 복타를, 시녀는 羽毛장식이 달린 관모를 쓰고 있다.

(Bertold Spuler, "History of Mongols -Based on Eastern and Western Accounts of the Thirteenth and Fourteenth Centuries", ROUTLEDGE & KEGAN PAUL, 1972, 184,185,189쪽 참조)

- 18) 『南薰殿畫像考』引永樂大典 析津志  
罟罟 胎用涼竹 外以大紅羅幔之 上等大 次等中 再次等小 用大珠穿結龍鳳樓台之類飾其前後 再用珠綴長條緣飾方弦掩絡其縫 又用小花朵插戴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4. 371쪽)
- 19) 테 바이에르 저, 박원길 역, 앞의 책, 1994, 72,73쪽 참조
- 20) Д.Баяр, "Каменные изваяния XIII-XIV веков Центральной Монголии",『MONGOLICA』. An International Annual of Mongol studies VOL.2(23), 3(24), ULAANBAATAR, 1991,1992, 71-72쪽 참조
- 21) 『永樂大典』卷7702 : 又以金累事件裝嵌 極貴 寶石塔形 在其上頂有金十字 用安翎筒以帶鷄冠尾 出五台山 今眞定人家養此鷄 以取其尾 甚貴 罢罟后 上插朵朵翎儿 染以五色 如飛扇樣 (羅賢佑 著,『元代民族史』, 四川民族出版社, 1996. 102쪽, 재인용)
- 22) N.V.Polos'mak, "파지리크 시대", (國立중앙박물관,『알타이 문명전』, 성인문화사, 1995. 67쪽 참조)
- 23) V.A.랴자노프스키, 서병국 역,『몽골의 관습과 법』, 도서출판 혜안, 1996. 114쪽
- 24) Martha Boyer,『MONGOL JEWELRY』, THAMES AND HUDSON, 1995. 28쪽
- 25) 江本敬二,『アジア北方諸民族の 婦人帽‘索黑塔’』『東亞論叢 3』, 東京 文求堂, 1940. 33쪽 및 인하대학교 조우현 교수 제공자료를 참조.
- 26) 『蒙韃備錄』, 婦女: 西遊記云 婦人冠以樺皮高二尺許.... 其末如鵝頭名曰故又作姑姑
- 27) 『蒙古可汗與可敦-The Mongolian King and Queen』, 台北 國立故宮博物館 ,1990. 1쪽, 7쪽 참조
- 28) 道森 編,呂浦 譯,周良霄 注,『出使蒙古記』,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8쪽
- 29) Christopher Dawson,『Mission To Asi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0. 102쪽
- 30) 테 바이에르 저, 박원길 역, 앞의 책, 1994, 76쪽 참조
- 31) 『南村輶耕錄』卷 十一, 賢孝: 國朝婦女禮服 韃靼曰袍 漢人曰圓衫 南人曰大衣 無貴賤皆如之
- 32)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4. 371쪽 재인용
- 33) 宋 彭大雅 撰, 徐霆 疏證 『黑韃事略』: 其服 右衽而方領 舊以氈毳革 新以綈絲金線 色用紅紫紺綠 紋以日月龍鳳無貴賤等差 霽嘗巧之 正如古深衣之製 本只是下領 一如我朝道服領 所以謂之方領 若四方上領 則亦

- 是漢人爲之 韓主及中書向士等人不會着 腰間密密打作細摺 不記其數 若深衣止十二幅 韓人摺多耳 又用紅紫帛撲成線 橫在腰 謂之腰線 蓋馬上腰圍緊束突出 采豔好看
- 34) 蒙古族簡史 編寫組,『蒙古族簡史』,內蒙古人民出版社, 1985, 117쪽
- 35) 趙珙 『蒙韓備錄』, 婦女
- 36) 李肖冰 著,『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美工圖書社, 1995년, 244쪽
- 37) 이은주, "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한국의류학회지』, 12권 3호, 1988, 368쪽
- 38) 권영숙, 이주영, 장현주,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복식과 고려후기 의복의 특성",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141쪽)
- 39)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壬辰倭亂 以前時期를 中心으로-", 世宗大學校 博士論文, 1992, 115쪽 (수미야 바타르 몽골 사회과학원 교수의 제공정보에서 재인용)
- 40) cuba degel: cuba debe(蒙): cuba sijigiyam(滿): 婦人 大禮服의 일종(女朝衣) (金炯秀 編著, 『蒙古語·滿洲語 比較語彙辭典』, 螢雪出版社, 1994, 177쪽)
- 41) 朴聖實, 앞의 책, 1992, 115쪽
- 42) 강득호 교수와의 현지 인터뷰 자료(2000) 中.
- 43) 바로 앞과 같음.
- 44) 道森 編, 呂浦 譯, 周良胥 注, 『出使蒙古記』,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60쪽
- 45) 『元史』卷 七十八, 與服 1: 質孫 漢言 ·色服也 內庭大宴則服之 冬夏之服不同 然無定制
- 46) 道森 編, 呂浦 譯, 周良胥 注, 『出使蒙古記』,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88쪽 인용
- 47) 『觀堂集林』, 觀十六: 然報達之塔納.... 蒙古人漫以東方塔納之名名之耳 蒙古初年此珠之用尤廣 輟耕錄卷三十云 只孫宴服貫大珠以飾其肩背膺間首服亦如之故元史列傳中亦謂只孫服爲珠衣
- 48) 『집사』삽화 중에 톨루이汗의 후비는 '칠릭' 형 의복을 착용하고 있다.
- 49) 『高麗史節要』卷 二十, 忠烈王十五年
- 50) Jacob D'Ancona, David Selbourne 英譯, 오성환·이민아 譯, 『빛의 도시』, 까치글방, 2000, 170쪽
- 51) 道森 編, 呂浦 譯, 周良胥 注, 『出使蒙古記』,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164, 179쪽
- 52) 원 제국풍의 복식은, 유목환경을 벗어나 중원지역으로 생활터전이 변화하면서 새로이 유행한 복식류로 따로 구분하기로 한다.
- 53) 『蒙史』十九 后妃列傳 1: 又製一衣 前有裳無衽後長倍前亦無領褒 緹以兩襟謂之比甲 便騎射時多倣之
- 54) 박원길, 〈몽골문화기행〉몽골의 문화와 습속, [http://www.zamchi.com/mongol\\_life.htm](http://www.zamchi.com/mongol_life.htm) 참조
- 55) 『朴通事諺解』上, 奎章閣叢書 第八: ....無袖對襟爲裝積者曰比甲 卽本國號지벌릭 婦女亦依此制 爲短換着之亦曰比甲通稱搭護
- 56) 『樂學軌範』, 卷八: 甲以青黃紅黑白段馬之竝開襟俗稱簪지....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壬辰倭亂 以前時期를 中心으로-", 1992, 112쪽 재인용)
- 57) 몽골국립역사박물관 난슬마 부관장과의 현지 인터뷰 자료(2000) 中.
- 58) 周錫保, 앞의 책, 1984, 372쪽에서 재인용
- 59) Дэвдэйн Баяр, 『МОНГОЛЫН ТӨВ НУТАГ ДАХЬ ТҮРЭГИЙН ХҮН ЧҮЛҮҮ』, Улаанбаатар, 2000, 46-47쪽
- 60) С.Бадамхатан 外, 『БНМАУ-ЫН УГСААТНЫ ЗҮЙ 1-ХАЛХЫН УГСААТНЫ ЗҮЙ』, Улаанбаатар, 1987, 151쪽 참조
- 61) 『庚申外史』, ....自至正以來 宮中給事使令 大半高麗女 以故四方衣冠靴帽 大抵皆依高麗矣
- 62) 〈宮中詞〉: 『張光弼詩集』(張東翼, 『元代麗史資料集錄』, 鮮于仲皓, 1997, 91쪽 인용)  
....侍女后妃頒刺綵....宮衣新尚高麗樣 方領過腰半臂裁連夜內家爭借看 爲會着過御前來
- 63) 李肖冰 著, 앞의 책, 1995년, 247쪽
- 64) 김문숙, "고려시대 원간첩기 일반복식의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91-92쪽 참조
- 65) 方領은 '방심곡령 용도로 모난 모양', '교차하는 直領깃', '목 아래에서 正方形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뉜다. (홍나영, "後短 方領半臂에 관한 고찰", 『服飾』44호, 한국복식학회, 1999년, 1-2쪽 참조)
- 66) 朴豆伊, "半臂의 源流와 變遷에 관한 研究-韓國과 中國의 半臂을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39쪽 참조
- 67) 홍나영, 앞의 책, 1999년, 123쪽 참조
- 68) 『高麗史節要』卷二十, 忠烈王四年
- 69) 『高麗史』卷八十九 列傳 第二 后妃 二: 元皇太后遣使賜妃姑姑 姑姑蒙古婦人冠名 時王有寵於皇太后故請之 妃戴姑姑 宴元使.... 後元遣使 賜妃姑姑 百僚宴妃弟用幣以賀 (『譯註高麗史』第8, 동아대학교 전연구실, 1969, 67쪽, 71쪽)
- 70) Ala-ad-Din 'Ata-Malik Juvani 著, J.A. BOYEL 譯, 『GENGHIS KHA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quero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262쪽.
- 71) 杉本正年 저, 문광희 역, 『동양복장사론고-中世편』, 경춘사, 1997, 213쪽 참조.
- 72) 『永樂大典』卷7702. (羅賢佑 著, 『元代民族史』, 四川民族出版社, 1996, 103쪽에서 인용)
- 73) 周汎·高春明 著, 『中國歷代婦女粧飾』, 南天書局有限公司, 民77年(1988년), 132쪽

- 74) 戴爭 編著,『中國古代服飾簡史』,台北南天書局,民國  
八十一一年,185頁
- 75) 《蒙韃備錄》,草木子雜制篇云 其俗有十六天魔舞 蓋以  
朱纓盛飾美女十六人爲佛 元宮詞云 十六天魔按舞時 寶  
粧 纓絡鬪腰
- 76) 《蒙史》十九 后妃列傳 一,蒙兀兒史記 卷 十九 :  
(至正十四年)...荒于游宴 以宮女三聖奴妙樂奴文殊奴  
等十有六人按舞 名十六天魔 首垂辯髮數支戴象牙佛  
冠 身披紫瓔珞 天紅綃金長短裙 金織襖 雲肩 合襻天  
衣 綏帶襆(=鞋)襆...